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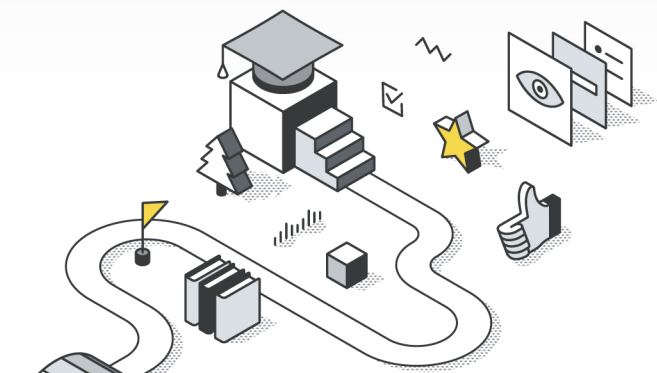
원격고등평생교육 국내 정책동향

2024
Vol
04



정책동향1

2024 글로벌대학 지정결과 및
규제개혁·제도기반 조성 방안



정책동향2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주요
추진 현황



정책과제

방송대 스터디모임 운영 현황
및 의견조사 결과



2024 글로벌대학 지정 결과 및 규제개혁·제도기반 조성 방안

★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2024년 글로벌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2024.8.28.)했습니다. 글로벌대학 프로젝트는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4년 글로벌대학 지정 결과와 함께 글로벌대학을 기반으로 확대될 규제개혁과 제도 기반 조성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대학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과 우리 대학에의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1 글로벌대학 사업 추진 개요

[글로벌대학]

- **의의** :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집중 지원
- **지정규모** : 2023년 10개 → 2026년까지 30개 내외 지정 목표
- **지정대상** :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 **지원사항** :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 지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 **지정방식** : 1단계(예비지정) 및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벌대학위원회 최종 심의

<글로벌대학 본지정 결과>

2024년	①건양대학교, ②경북대학교, ③국립목포대학교, ④국립창원대학교·거창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한국승강기대학교, ⑤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⑥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⑦대구한의대학교, ⑧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⑨인제대학교, ⑩한동대학교
2023년	①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②경상국립대학교, ③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④순천대학교, ⑤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⑥울산대학교, ⑦전북대학교, ⑧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⑨포항공과대학교, ⑩한림대학교



2024 글로벌대학 본지정 대학 특징

1 건양대학교: K-국방산업 선도대학

- 국방산업 중심으로 대학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관련 시험·인증·실증 중심으로 교육·산학협력 특화 및 국방 협력 플랫폼 기능 구현
- 국방산학융합원, 국방바이오연구원, 사회과학학술원, AI·SW융합대학을 잇는 K-국방산업 지원체계(3원 1대학) 구축
- 방위산업지원센터, 국방산업 기술정보 및 사업화 공유·협업 중개, 기술고도화 지원, 비R&D사업화 지원 등 K-국방 협력 플랫폼 구축

2 경북대학교: 글로벌로 도약하는 연구중심대학

- 대학원 중심으로 대학 체질을 전환하고 대구시와 함께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청년 연구자를 유입하고 양성하는 모델
- 대학원 중심 체제 전환 및 청년연구자 지원
※'33년까지 대학원생 비율 15%p 확대(28%→43%) 및 학부 정원 540명 감축, 전일제 박사과정 등록금 전액 지원, 박사과정생 외국 대학·연구소 연수 지원
- 연구 우수교원 다년집중연구년제, 상위 5% 강의시수 감면·정년 연장(Professor II)

3 국립목포대학교: 신해양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

- 해양특성화 분야 산업체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특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
- 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으로 기능·기술인력 전주기 인력양성. 해양 특성화 전공을 이공계 중심 13개 전공 및 비이공계 포함 30여 개로 확대, 2년제 해양 특성화 관련 학부 신설 및 글로벌 우수 산업기능인력 양성
- 글로벌 사이언스 파크 조성 및 6개 글로벌 연구센터 육성

4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한국승강기대학교: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대학

- 연구기관과의 연합, 지역 내 공립대학과의 통합을 토대로 국가산단의 핵심 R&D부터 고급인력-기능인력 양성 수요에 체계적 대응
- DNA+ 특성화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첨단과학기술대학 운영.
첨단방위공학·원전시스템·우주항공부품·군수용이차전지 등 특화 교육과정 운영
- 국·공립대 통합 및 사립전문대 연합을 통한 DNA+ 기능인재양성. '26년 국립창원대·거창도립대·남해도립대 통합대학 출범 및 특성화 캠퍼스 운영

5 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통합산학협력단 기반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 실현

- 지자체가 참여하는 연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특화중심 캠퍼스로 지역산업에 기여 및 통합산단으로 사립대의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 연합대학 거버넌스 구축. 대학 총장·부산시장·산업계대표 등이 참여하는 연합대학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
- 4대 특화분야(에너지테크·휴먼케어·문화콘텐츠·B-헤리티지 산업클러스터)에 Field 캠퍼스 기반 교육·연구. 통합산단 법인 설립 및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수익형 산단 운영

6 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보건의료산업 전문인력 양성 전문대학 모델 제시

- 사단법인 설립으로 연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강점분야 특성화 및 보건의료산업 교육과정 표준화·해외진출 등 공동 추진
- 연합대학 거버넌스 구축. (사)한달빛글로벌보건연합대학 이사회 및 한국보건대 설립(한국보건대 총장이 글로벌대학 총괄)
- 3개 특화캠퍼스(대구·광주·대전) 내 각 4개 스쿨로 학사구조 개편. 3개 캠퍼스 강점 집약 교육과정 단일화·표준화로 전문대 보건의료 교육과정 기준 제시

7 대구한의과대학교: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로 지역산업육성 및 해외진출

- 한의학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하여 특색사업화 및 해외 수요 맞춤형 협력대상 확보 및 현지 공동 사업 추진
- K-MEDI 산업 기반 G(경북) 벨트 구축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혁신파크 조성
- K-MEDI 글로벌 확산. 베트남(호치민기술대), 태국(듀라킷퓌닛대), 중국(장춘중의약대), 몽골(몽골약대), 우즈베키스탄(부하라 국립의과대)-프랑스(몽펠리에대) 등과 협력

8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생명산업의 글로벌 거점대학

- 일반대-전문대 통합 및 대학 내 특화 밸리 조성으로 생명산업 특화 분야 중심으로 대학 체제 구축 및 산업 혁신 주도
- 일반대-전문대 통합으로 융합형 생명산업 특성화 대학 출범. '26년 통합대학 출범, 생명산업 관련 학과를 3개 생명융합대학(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으로 재편
- 생명산업 생태계 허브화 및 글로벌 생명산업 인재양성. 대학 내 의생명융합밸리, 농생명융합밸리, 생명서비스 융합밸리 등 3개 Zone 구성. 저개발국가의 미래리더급 인재 ODA 기반 유학생 유치 및 연수·협력 프로그램 운영

9 인제대학교: 대학을 책임지는 도시, 도시를 책임지는 대학

- 지자체-대학 참여 재단을 기반으로 대학 도시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건강·산업 관련 수요에 따라 지역 내 대학 특성화·서비스 제공
- 지자체-대학-혁신기관 공동 참여하는 All-City 거버넌스 기반 구축·운영
- 허브캠퍼스(물류플랫폼 연계 디지털혁신밸리 내 교육·연구·산업·정주 복합단지), 거점캠퍼스(인제·가야·김해 임상시뮬레이션 센터 경험공간, 공원·문화 공간 조성), 현장캠퍼스(복합서비스/교육 연구 특화/현장 실무/글로벌 실무) 운영

10 한동대학교: 글로벌 HI(Holistic Intelligence) 플랫폼 구축

- 미래대학 HI 교육모델 실현. 미네르바 및 ASU 교육모델을 한동형 학습모델로 고도화. HI 교육혁신원 신설(교육모델 연구·확산, 시 기반 코스웨어 및 교육콘텐츠 개발, 국내외 고등교육기관 공동연구, HI 확산을 위한 컨설팅·자문 수행)
- 학생자율선택전공체계 완성 및 4대 혁신학기제도 개발. 복수전공제도 의무화 및 전공 Pass/Fail 선택제, 전공·교과목 100% 자율 선택 및 전공 선택제한 완전 폐지. 리셋학기(신입생 진로탐색), 프로젝트몰입학기(4주/6주/8주 등), 지역혁신집중학기, 글로벌 로테이션 학기(해외교육 거점 문제해결 중심 참여)
- 미래신산업-교육-주거 융합 기업혁신파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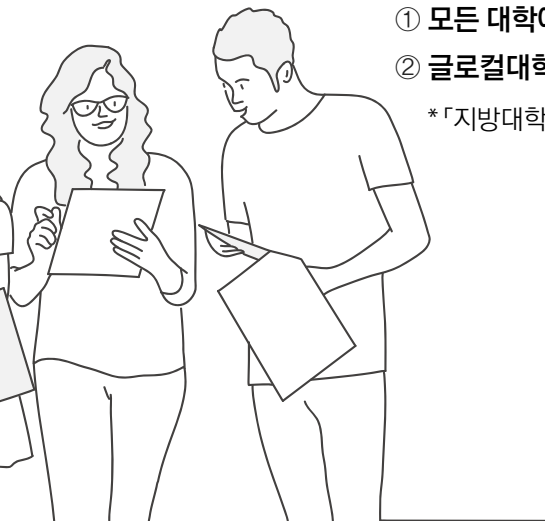


3 글로벌대학 혁신 동행형 규제개혁 및 제도 기반 조성 추진

- 지역의 혁신 골든 타임에 대응, 대학과 지자체가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혁신계획 수립(Bottom-Up)하고, 중앙정부는 현장이 요구한 제도 개선과 규제개혁을 이행하여 성과창출 지원
- 제도개선·규제개혁 이행 방식

- ① 모든 대학에 적용 가능한 과제 → 법령·지침 개정을 통해 일괄 개선(전체적용)
- ② 글로벌대학 적용 후 확산 과제 → 규제특례* 등 성과분석 후 법령·지침 개정(특례적용)

*「지방대학육성법」 근거, 지방대학에 한하여 한시적(4+2년)으로 법령상 규제 완화·배제 가능



주요영역	세부영역	적용대상
대학 간 벽허물기	(현행) 국립대 통합시 타 대학과 동일한 단일 총장 거버넌스 (개선) 대학위원회 + 전체 총장(system office) + 캠퍼스총장 ※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전체대학 (국립대학)
	(현행) 교육대 통합시 단과대학 형태로 편입 (개선) 통합대학을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교-사대 융합) ※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현행) 공립대 통합시 전문학사 일괄 폐지 / 지자체 소유 시설 국립대 캠퍼스 운영 불가 / 통합시에도 공유재산 유지 (개선) 전문학사 동시 운영 / 국·공립 통합 대학에 한해 지자체 시설 국립대 캠퍼스 허용 / 공유재산의 국가재산 이관 허용 ※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추진	
대학-산업체- 연구기관 벽허물기	(현행) 대학원장·단과대학장 주요 보직에 교원만 임명 가능 (개선) 외부 인사 임명 허용(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 도모) ※ 규제특례를 통해 교육공무원법 적용 완화	글로벌대학 (국립대학)
	(현행) 외부이나 영입시 국립대 직원 보수 기준 동일 적용 (개선) 정상급 인사 초빙(임기제) 시 파격적 보수 적용 ※ 연봉 책정 특례 적용 직위·분야 지정(공무원보수규정 예외기준)	
	(현행) 비전임교원에 정년기준(65세) 적용 (개선) 검증된 인사는 정년기준 예외 부여 ※ 규제특례를 통해 고등교육법 적용 완화	글로벌대학
	(현행) 겸·초빙교원도 공개채용 절차 필수 (개선) 검증된 인사는 공개채용 예외 부여 ※ 규제특례를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적용 완화	
	(현행) 대학의 현장실습처 지원금액 상한(최저임금 25%) 적용 (개선) 공공기관 및 출연연은 지원금액 상한 미적용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개정	
(현행) 계약학과 이동수업은 산업체 보유·임차시설에서 허용 (개선) 계약학과 이동수업 장소를 대학 소유 시설로 확대 ※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고시) 개정(권역 범위 검토 중)		
국립대학의 혁신동력 확보	(현행) 글로벌 사립대만 교직원 인센티브 허용(사업비 5%) (개선) 글로벌 국립대에도 동 기준으로 교직원 인센티브 허용 ※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개정	글로벌대학 (국립대학)





4 관련 정책 추진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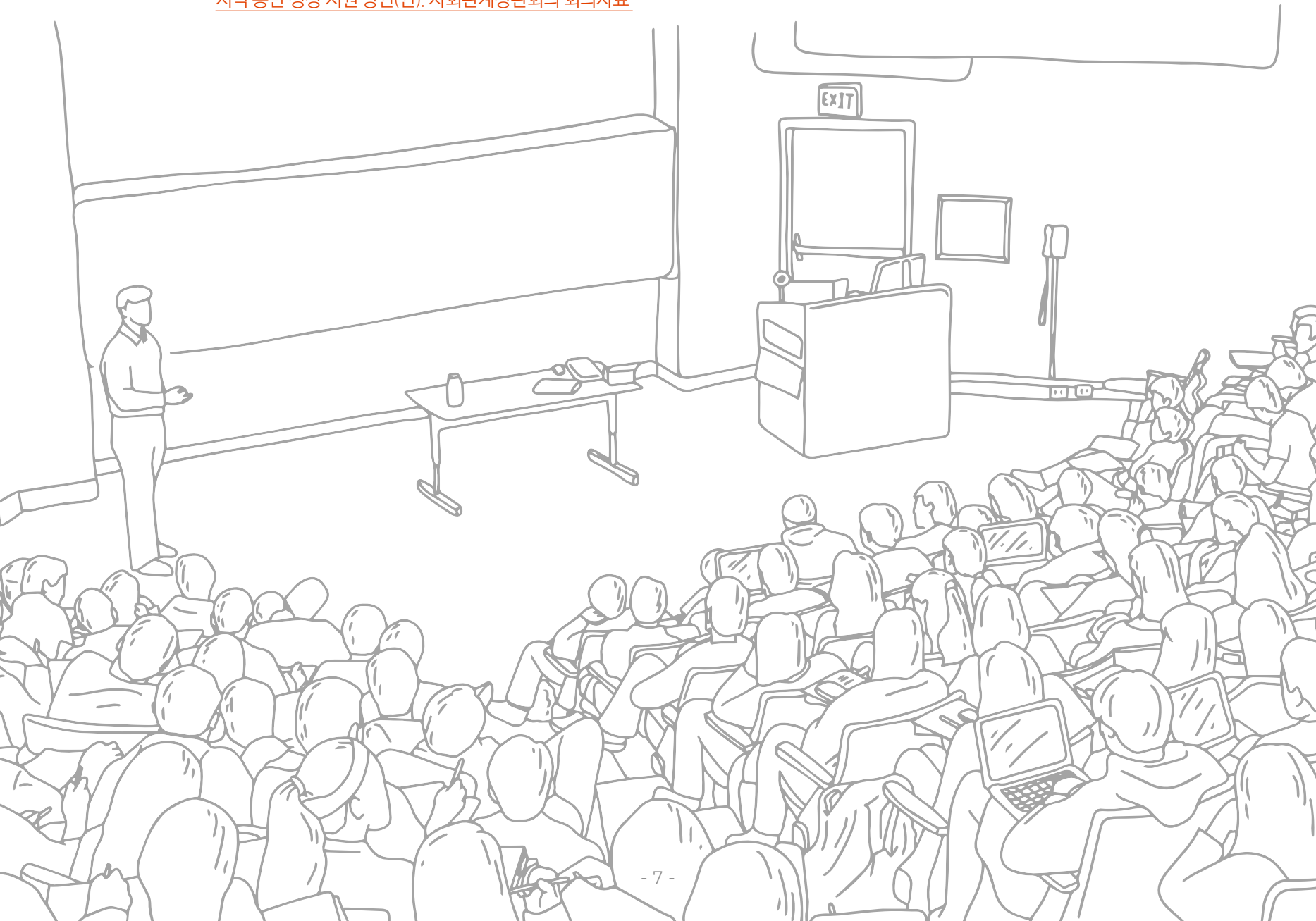
- **글로벌대학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학혁신의 방향 및 트렌드를 파악하고 방송대 특성화에 기초한 대학혁신의 운영 모델 고민 필요**

 - 지역발전 및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과감한 대학교육 혁신의 추구,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체계 구축, 지역과 대학 수요에 기반한 유일한 대학 특성화 모델 구축 등 글로벌대학 본지정에 선정된 대학들의 특징을 참고하여 방송대가 추구해야 할 특성화 모델 및 대 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대학 교육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관련 규제 타파와 개선의 과업들을 추적하고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 우리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혁신의 제도 개선 사례 마련 필요**

 - 학칙 및 학내 규정 등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교육혁신의 법령 및 지침 사항들을 검토함과 동시에 대학 자체 차원에서 우리 대학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자료출처〉 교육부(2024.8.28). 2024년 글로벌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부처합동(20204. 9.) 대학-지역 동반 성장 지원 방안(안). 사회관계장관회의 회의자료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주요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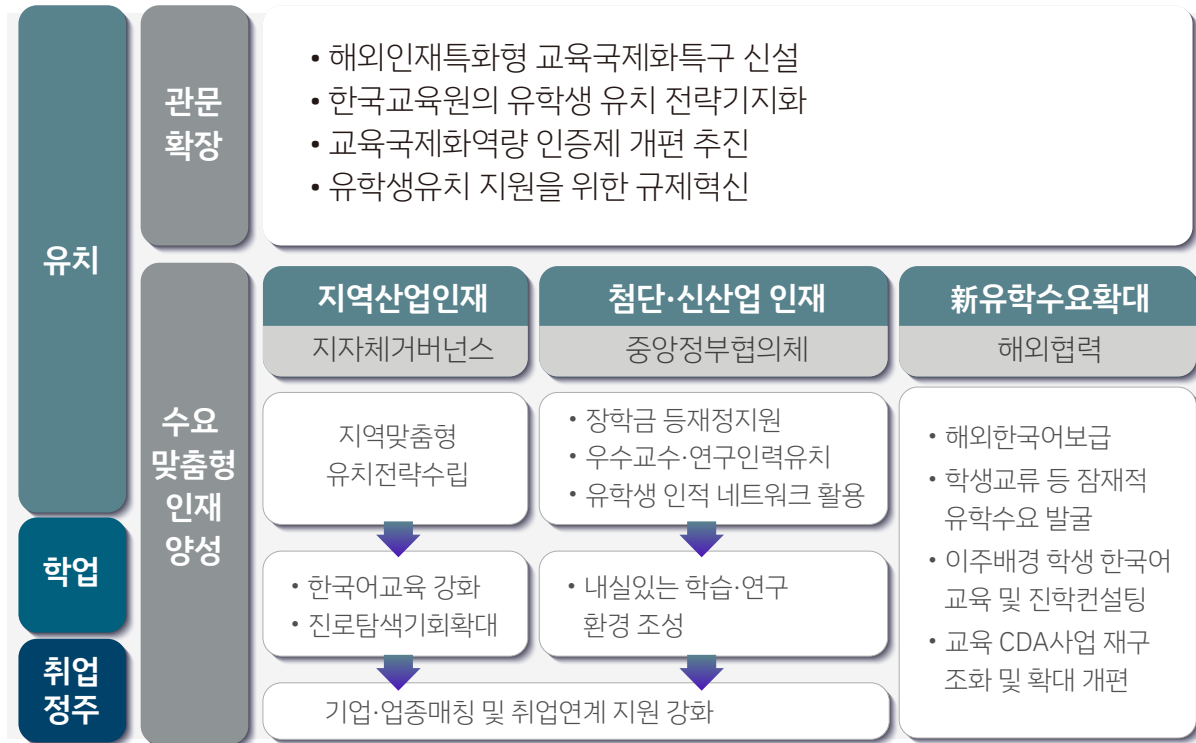
★ 정부는 2023년 8월 유학생 유치 및 정주를 위해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9월 해당 정책 수행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해당 방안의 주요 이행 현황을 파악하면서, 우리 대학의 해외 학생 유치 현안에 시사할 수 있는 주요 고려점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1 정책 개요

- 2023년 8월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 강국 도약’을 목표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발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주요 과제(‘23.8.16)〉





2 <유학생 교육경쟁력 방안(Study Korea 300K)>의 주요 현황 및 성과

- **(유학생 수 증가)** 지역별·분야별 인재 유치 정책 추진 등으로 전체 유학생 수와 비수도권 유학생 수 모두 증가(2024년 유학생 20.9만 명, 2022년 대비 25% 증가)
 - 라이즈(RISE) 시범 지역 지자체가 각 지역의 인력 수요와 여건에 맞는 유학생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존의 개별 대학 중심의 유학생 유치 체계가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
 - * '부산형 유학생 유치양성 방안(Study Busan 30K Project)' 등 5개 시·도 수립

- **(유학생 유치 관문 확장)** 전략적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해외 한국교육원에 유학생 유치센터 확대 설치
 - 총 11개 한국교육원*에 유학생 유치센터 설치 추진, 효과적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위해 매뉴얼** 제작('24.4.), 전담 인력 인건비 등 지원
 - * 7개 교육원(LA·오사카·호치민·하노이·태국·타슈켄트·알마티) 및 신설 예정 4개원(시애틀·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
 - ** 유학수요 정보 수집·제공, 유학프로그램 홍보, 현지 학생 대상 유학박람회 개최 등의 내용 수록

- **(유학생 유치 인프라 및 질관리 체계 구축)** 유학생 유치 질 관리를 위한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및 유학생 유학 정보 제공 시스템인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개편 추진
 - 유학생 유치 장벽을 낮추되 지역 정주 인재를 육성하고 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완료('24.8.28.)
 -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12) 30개 → ('23) 134개
 - AI 활용 상시 상담과 유학 생활 전주기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25.4.)
 - * 스타디(학과, K-MOOC), 장학금(GKS, BK21) 라이프(챗봇상담), 취업(민간 플랫폼 연계), 박람회(유학·취업)

- **(유학생 학업 지원)** 지역에서 유학생 유치 후 한국어 교육 및 적응을 지원
 - 지역에서 유학생 유치 후 한국어교육 및 적응을 지원하도록 RISE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한국어센터 지정 추진 중이며, 전체 시도 거점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확대 추진 계획('25~)
 - K-MOOC를 통해 유학생 대상 한국어·한국이해 강좌 제공 및 해외 학습자 수요 등을 반영한 신규 강좌 개발 추진
 - ※ 한국어·한국학 강좌:('21)105개 → ('22)217개 → ('23)332개 → ('24.6)360개
 - ※ 한국어·한국이해 강좌 신규 개발, 수요도 강좌 대상 영어 시번역 및 다국어 자막 추가 개발





3 방송대 시사점

- 최근 개정된 학칙 조항, ‘국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운영(2024.10.8.)’과 관련하여 해외대학 학생의 우리 대학 교육과정への 참여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바, 해외 대학 학생의 유치 및 학업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
- 현재 우리 대학은 원격대학으로서 유학생 유치의 질 관리 확보 기제인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실태조사에 참여대학으로서의 자격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공동 학위 등의 형식으로 원격대학에 해외대학 학생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질 관리 방안을 정부 및 개별 대학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
- K-MOOC 등과 연계한 유학생 학업 지원 사업과 관련,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한국학센터사업을 통한 대상 맞춤형 한국어교육콘텐츠 개발 등 방송대가 추진 가능한 유학생 지원 사업의 참여 방안 검토

*〈자료출처〉 관계부처합동(2024. 9.)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보고 자료.



방송대 스터디모임 운영 현황 및 의견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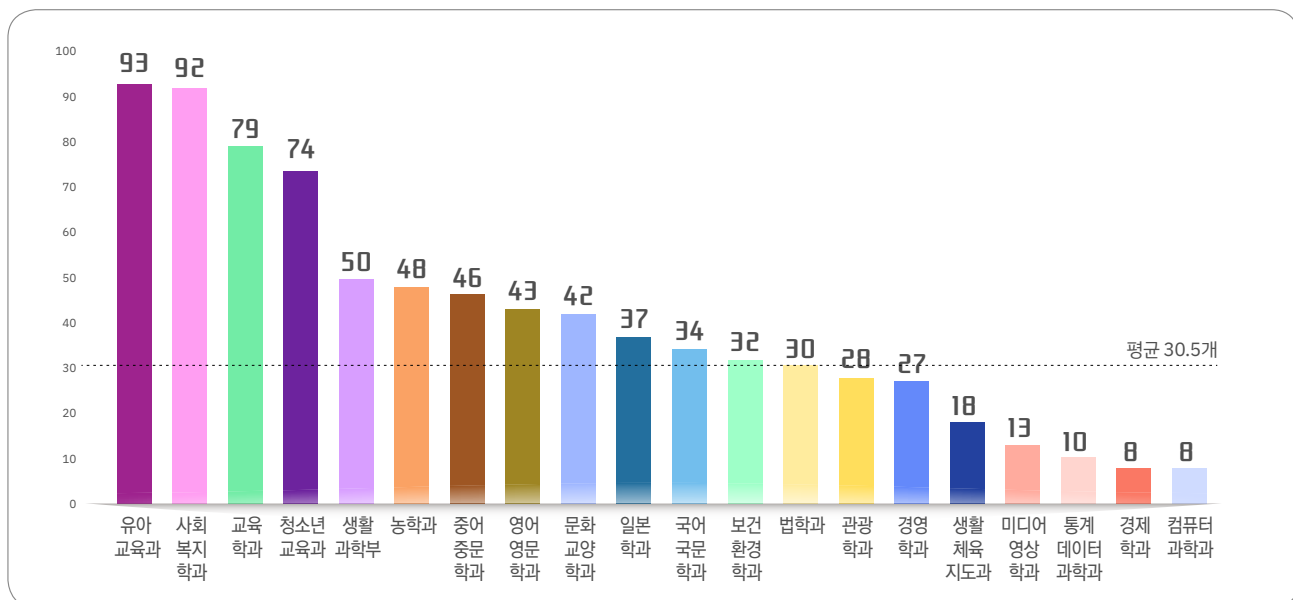
★ 스터디모임은 소속감, 신뢰감, 상호작용, 정서 공유 등을 바탕으로 대학 학업 참여에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대 학생들은 우리 대학의 스터디모임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을까요? 이번 호에서는 방송대 스터디모임의 현황과 이에 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대학 스터디 모임의 특징과 운영상의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방송대 학습네트워크 운영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방송대 학습 네트워크 운영 사례 및 유형 분석(2023, 과제책임자: 김상홍 선임연구위원)」에서는 방송대 스터디 모임 현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합하고 분석하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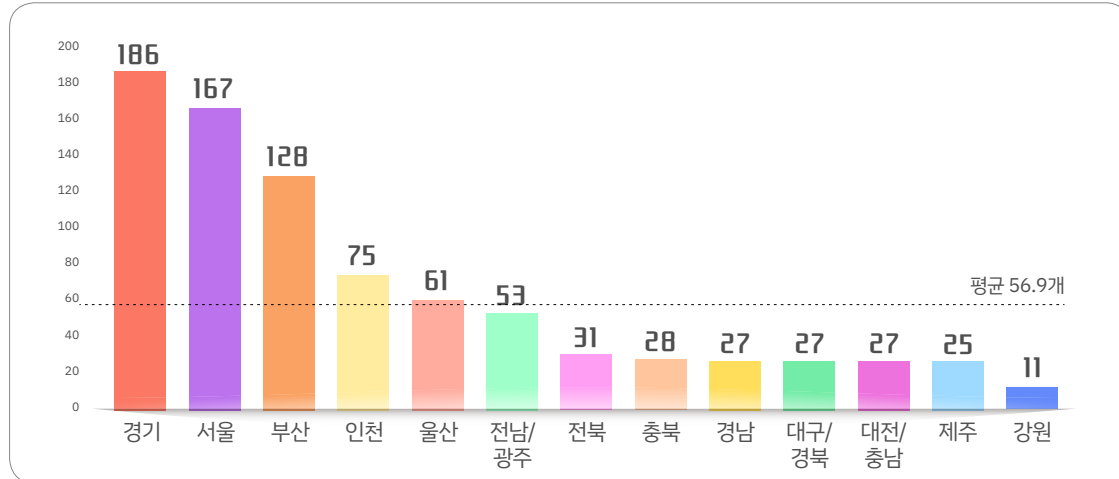


1 방송대 스터디 모임 운영 현황

- 대학(학생처)이 보유한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방송대의 온-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은 총 854개로 나타남
- (학과별 현황) 학과별로는 유아교육과(93개), 사회복지학과(92개), 교육학과(79개), 청소년교육과(74개), 생활과학부(50개), 농학과(48개), 중어중문학과(46개), 영어영문학과(43개), 문화교양학과(42개), 일본학과(37개), 국어국문학과(34개), 보건환경학과(32개), 법학과(30개), 관광학과(28개), 경영학과(27개), 생활체육지도과(18개), 미디어영상학과(13개), 통계학과(10개), 경제학과(8개), 컴퓨터과학과(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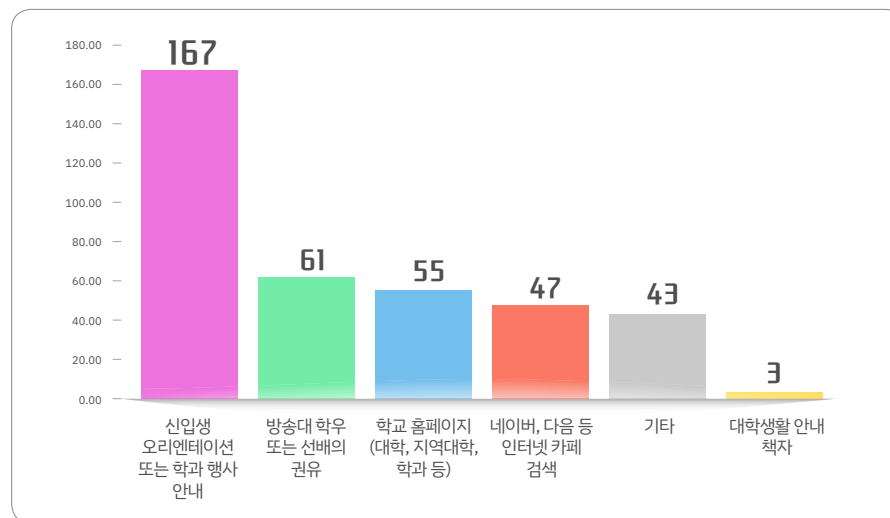
- (지역별 현황) 지역 기준으로는 경기(186개), 서울(167개), 부산(128개), 인천(75개), 울산(61개) 순으로 스터디 모임의 수가 많았으며, 강원, 대구/경북, 제주, 대전/충남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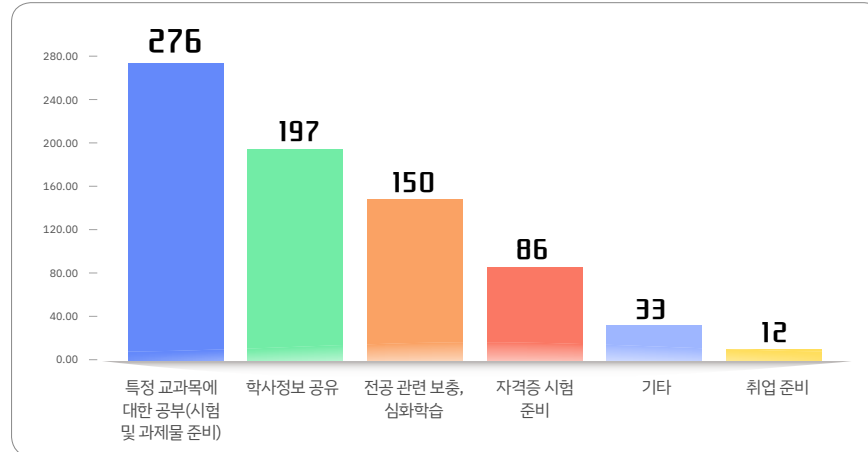
2

방송대 스터디 모임 참여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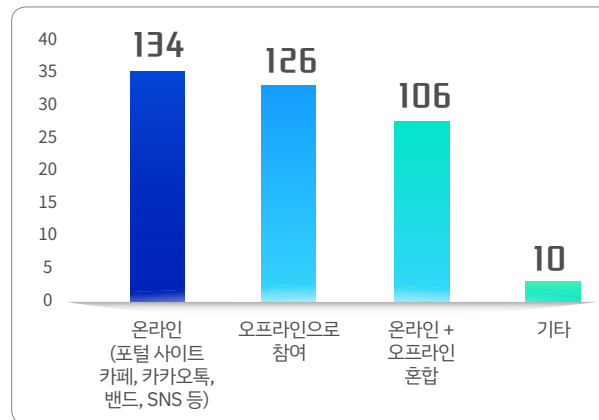
- 방송대 스터디 모임의 참여 특징에 대해 2023년도 재학생 가운데 설문에 참여한 542명의 응답 결과 제시
- (스터디 가입 경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또는 학과 행사 안내'로 인한 스터디 모임 가입이 167명 (44.4%)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방송대 학우 및 선배 권유'가 61명(16.2%),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은 55명(14.2%)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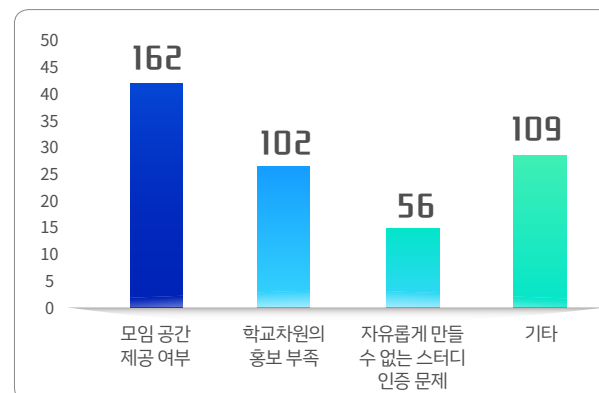
- **(스터디 참여 목적)** 전체 응답자 중 276명(73.4%)이 ‘특정 과목의 시험 및 과제를 위해’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학사정보 공유’(197명), ‘전공 관련 보충 및 심화 학습’(150명) 순으로 응답하였음(다중응답)



- **(스터디 모임 참여 방식)** ‘온라인을 통한 스터디 모임’이 134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프라인 모임’은 126명(33.5%)이었음. 온-오프 결합의 온라인 이용 형태까지 고려하면 전체 63.8%(240명)로 온라인 참여 방식이 많음



- **(스터디 모임 문제점)** ‘모임 공간 제공 여부’가 162명(43.1%)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학교 차원의 홍보 부족’이 102명(27.1%)으로 그 다음이었음





3 시사점 및 제언

- 스터디 모임의 참여 정도 및 활용 목적이 학과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과 특성에 맞는 스터디 모임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온라인 스터디 모임 참여 비율이 높은 만큼, 학교 차원에서 학습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스터디 지원 도구를 마련할 필요
- 물리적 공간 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된 바, 스터디 모임을 위한 공간의 확대 여부 및 필요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스터디 공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
- 스터디 참여 지원을 위해 학과 행사와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자료 출처> 김상홍·우영희·양유정·서희정(2023). 방송대 학습 네트워크 운영 사례 및 유형 분석(23-0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